

KTAPPI 인터뷰

제지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 얼굴

2025년 춘계학술대회의 신진연구자 인터뷰

2025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신진연구발표자로 발표장을 빛낸 4명의 젊은 연구자들을 만났다. 서울대, 강원대, 충북대 그리고 국립경상대에서 새로이 강의와 연구에 열중하고 있는 네 분의 교수님이 갖고 있는 목표와 희망 그리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어떻게 하면 학계와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펠프종이 기술은 젊은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펠프종이기술: 반갑습니다. 춘계 학술대회의 신진연구자 발표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신진이라고 하기에는 좀 연차가 있으신 오규덕 교수님부터 임용시기는 조금 다르지만 아직 신진연구자라고 할 수 있는 세분을 모시고 앞으로의 기대와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각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오규덕: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3월부터 서울대학교 농림생물자원학부 환경재료과학전공에서 제지가공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오규덕입니다. 2006년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에 입학하여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을 거쳤으며, 2017년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서울

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과 제지가공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핀란드의 Åbo Akademi University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연구 경력을 쌓았습니다. 2022년에 충남대학교 환경소재공학과에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2023년에 서울대학교로 부임하여 현재까지 제지가공 및 친환경 소재 응용과 관련된 교육과 연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임완희: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년 2학기부터 충북대학교 목재·종이과학과에 임용되어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시작한 신임 교수 임완희입니다. 교수로 부임하기 전에는 무림 P&P 연구소 내 나노 프로젝트 그룹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셀룰로오스 나노섬유(CNF)를 중심으로 한 소재 개발 및 그 산업적 응용 가능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해왔습니다. 특히, 셀룰로오스 나노섬유의 저비용 제조 공정 확립, 기능성 강화, 그리고 고기능성 종이, 복합재료, 에너지소재 등 다양한 응용 분야로의 확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기업 현장의 기술 개발과 실제 적용을 위한 경험을 다수 축적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학문적 연구뿐 아니라 산업과 연계된 실용적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연구와 교육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바이오소재의 가치 창출을 위해 융합적이고 실용적인 연구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단비: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종이 소재과학전공에 2025년 3월에 임용된 이단비입니다. 저는 2023년 8월 루이지애나주립대(LSU)에서 Renewable Natural Resources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동대학 내 AgCenter와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재직 후 강원대학교에 임용되었습니다. 셀룰로오스 기반 친환경 소재 개발과 나노셀룰로오스의 개질과 활용 기술에 대한 연구를 폭넓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권수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월 경상국립대학교 환경 재료과학과에 조교수로 부임한 권수진입니다.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이학래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2022년 8월에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에서 Richard Venditti 교수님과 Joel Pawlak 교수님의 공동 지도하에 바이오소재의 호기성 수중 생분해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NCSU, 멜라웨어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펠프와 종이 소재를 포함한 다양한 바이오 기반 소재의 생분해성과 친환경성에 주목하여, 보다 지속가능한 소재 개발과 환경영향 개선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펄프종이기술: 네 분 교수님 모두 최근 대학에 임용받으셨는데 어떻게 적응하고 계신지와 임용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초심을 잊지 않고 펠프제지산업에 필요한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과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규덕: 임용 첫해에는 많은 신임 교수님들과 마찬가지로 수업 준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며, 이제는 어느



정도 연구환경이 조성되어 연구에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임용 전에는 연구에 대부분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었지만, 임용 이후에는 연구 뿐만 아니라 수업, 행정, 대외활동 등 다양한 업무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제가 하고자 했던 연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과 연구활동을 통해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이단비: 지식의 보고이자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대학에 임용되어 매우 기쁘고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생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학계와 산업계에 계신 분들과 협업하여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를 지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계의 일원으로서 항상 배우는 자세로 겸손하고 성실하게 참여하고 기여하겠습니다.

임완희: 최근 충북대학교 목재·종이과학과에 교수로 임용되어,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학문적으로도 인생의 큰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에 대

해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소와 산업체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지속가능한 소재와 제지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와 교육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며 지식과 가치를 나누는 과정에서 제 자신도 더 깊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잊지 않고, 연구와 교육, 그리고 학문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수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히 나아가겠습니다.

권수진: 새로운 환경에서 독립적인 연구자이자 교육자로 첫걸음을 내딛게 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과 연구를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된 점에 큰 책임감과 동시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국립대학교는 풍부한 제지·임산·농림 산업 기반과 인프라, 그리고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이 공존하는 장소로, 제가 연구해온 바이오 기반 소재 및 친환경 소재 개발과 매우 밀접한 접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토대로 학부 및 대학원 교육과 연구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펠프제지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및 산업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펠프종이기술: 주요한 연구분야는?

오규덕: 저는 지류가공학을 전공으로 하여, 대학원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안료코팅기술을 주요 연구주제로 삼아 연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제지가공 분야 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전극 코팅 등 다른 분야의 코팅공정에도 안료코팅기술 경험을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코팅기술에 셀룰로오스 나노소재를 적용하는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룰로오스 나노소재를 코팅용 혼탁액이나 슬러리의 첨가제로 활용할 경우, 기존 고분자 소재와는 차별화된 장점을 제공할 수 있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이와 같은 셀룰로오스 기반 기재의 표면처리 기술과 셀룰로오스 나노소재의 응용기술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단비: 저는 목재 및 비목재 유래 셀룰로오스와 나노셀룰로오스의 제조와 개질 및 활용에 대한 연구를 다양하게 수



행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소재인 셀룰로오스 나노입자의 경제적 대량생산 연구, 기계적 처리와 화학적 개질을 이용한 약물 전달체, 스마트 센서 등 첨단 신소재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폴리사카라이드 기반 기능성 코팅제 개발 연구로 나노입자의 분산성 및 안정성 개선과 유변학적 특성 분석으로 스프레이 코팅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여 산소 및 에틸렌 차단 박막을 형성하여 스마트 패키징 분야에 적용 가능한 코팅 물질의 적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다양한 농산물과 임산물에 적용되어 수확 후 부패를 방지하고 저장 기간을 늘려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의 손실을 줄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성 물질을 탑재하여 농산물이나 임산물 각각에 맞는 코팅 물질을 개발, 적용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임완희: 저는 셀룰로오스 나노섬유의 저비용 제조 방법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무림P&P 연구소에서 셀룰로오스 나노섬유의 산업적 응용 분야 발굴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해왔습니다. 연구기관과 산업체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펠프 소재를 활용한 기능성 셀룰로오스 소재개발과 이의 응용연구를 수행 중이며, 제지 프로세스를 활용한 가죽 대체 소재 개발 등 지속가능한 소재 개발을 위한 융합 연구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

로 친환경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바이오소재 개발을 통해 산업적 활용성과 학문적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권수진: 저의 주요 연구 분야는 바이오 기반 소재의 생분해성과 환경 영향 평가입니다. 펄프 및 종이 소재 뿐 아니라 전분, 셀룰로오스, 바이오플리에스터 등 다양한 바이오플리머를 활용한 생분해성 소재의 분해 메커니즘 규명과 성능 향상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들의 생애주기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를 통해 실제 환경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국내 종이 제품의 생산 및 폐기 시스템과 연계한 LCA 연구와 함께, 기능성과 생분해성을 동시에 갖춘 바이오 소재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펄프종이기술: 각 대학의 사정이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신진연구자로서 대학에서 연구생활을 시작하면서 겪는 고민과 기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기반 마련과 연구비 확보가 가장 난제입니다만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노력 중입니다.”

오규덕: 임용 첫해에는 연구환경 조성과 수업 준비로 매우 바쁜 시간을 보냈고, 2년이 지난 지금은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신진연구자로서 가장 큰 고민은 본인의 중점 연구 분야를 개척하는 것과 안정적인 연구비 확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구비 수주가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다양한 분야로 연구를 확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래 중점적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연구 분야에서 점차 멀어지고, 연구비 트렌드에 따라 연구 주제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는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저의 중점적인 연구 분야의 깊이를 더해가는 한편, 어떻게 하면 이를 기반으로 연구주제를 확장하고 연구비를 확보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비: 신진연구자로 대학에 첫발을 내디디며 기대와 책임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학생들과의 소통에 있어 서로 다른 관점과 경험의 차이를 느끼며, 보다 열린 자세로 다가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실 장비를 구축하고 실험 환경을 갖추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

도 있지만, 연구 기반을 하나씩 마련해가는 과정에 보람을 느낍니다. 교육과 연구에 모두 성실히 임하며, 학생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교수가 되고자 합니다.

임완희: 신진연구자로서 대학에서 연구 생활을 시작하면서 기대와 고민이 교차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림 P&P 연구소와 같은 산업체에서의 실무 경험은 저에게 셀룰로오스 나노섬유와 바이오 기반 소재의 연구와 기술개발에 있어 실질적이고 응용지향적인 시각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기대와 설렘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연구성과를 확장하거나 융합 연구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로운 기회의 기회,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며 학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구실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고, 연구비를 확보하며, 장기적인 연구 방향성을 설정하는 과정은 신진연구자로서의 큰 도전이기도 합니다. 특히, 초기 연구성과를 빠르게 확보하고 외부 연구비를 수주함으로써 연구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부담감도 있습니다. 아울러, 교수로서의 교육과 행정 역할을 병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 관리와 균형감각 역시 새롭게 익혀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자유와 사회적 기여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은 제게 매우 의미 있고 보람된 여성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산업체와 학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 가능한 소재 연구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권수진: 연구자로서 독립적인 연구실을 꾸려가며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 설레면서도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초기 연구비 확보와 연구실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연구 주제의 자유도가 높아진 만큼 앞으로 더욱 다양한 연구 기회가 열려있다는 점이 기대가 되는 동시에, 새로운 연구 주제 발굴에 대한 고민을 항상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새로운 연구팀을 꾸리며 같이 성장하고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원숙한 연구자로 거듭나기 위해 꾸준히 고민하며 성과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펄프종이기술: 개인 연구자로서 활동도 중요하지만 상호 협력연구나 산학협동연구도 서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각 연구분야의 영역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학제적 연구와 산학연구를 통해 학문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오규덕: 각 연구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별 연구자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협력기회를 만들 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지 관련 국가 연구과제를 통해 학계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구자 개인도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지속적인 확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제지산업에서 축적된 기술을 타 산업 분야에 응용함으로써 새로운 연구 기회를 창출하고 연구영역을 넓혀가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단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듯, 지금은 혼자만의 연구보다는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개인 연구를 충실히 이어가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협력연구를 통해 연구의 깊이와 응용 가능성을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다루는 코팅 물질은 콜로이드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평가에 있어 다양한 분석 기법과 전문 지식이 요구되어, 관련 분야 연구자들과의 협업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패키징 코팅 기술은 다양한 산업과 접점이 많기 때문에, 실제 적용을 고려한 다학제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함께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임완희: 개인 연구자로서 독립적인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연구와 산학협동연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속한 분야인 셀룰로오스 기반 바이오소재 및 제지 프로세스 기술은 실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융합 연구가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우선, 학내외 연구자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융합적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이를 공동연구 형태로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소재, 환경공학, 섬유 및 고분자 분야 연구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셀룰로오스 나노소재의 새로운 응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공동 논문, 공동 과제 수주 등의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산업체에서 근무하며 쌓아온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업과의 산학협력 연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장의 수요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기술 개발과 실용화 연구를 기획함으로써, 기업과 대학이 서로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권수진: 말씀해주신 것처럼, 펄프·종이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과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연구자 간 협력과 산학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기업, 연구기관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협력 구조를 통해 보다 실용적이고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소재 및 제품의 생분해성과 환경 영향 평가 분야는 실환경 기반 연구가 핵심이며, 산업체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학계와 산업체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실험실 내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현장과 연결된 분석과 검증을 통해 산업에 실질

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산업체와의 협력 기회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펄프종이기술: 펄프종이기술은 특히 신진연구자님들의 적극적인 투고에 의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리뷰 논문을 투고해 주시고 계신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리뷰 논문 주제를 소개해 주시지요.

“리뷰논문을 통하여 각 분야의 최신동향과 새로운 방향을 소개하고자합니다.”

오규덕: 최근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로 종이 소재가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포장재 분야에서는 종이 소재의 적용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종이 기반 포장재에 제조기술과 관련하여 표면코팅기술에 관점에서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리뷰 논문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이단비: 나노셀룰로오스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 패키징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코팅 물질을 개발하여 이를 부패 속도가 빠른 과일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셀룰로오스 및 나노셀룰로오스를 활용한 코팅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이를 정리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리뷰 논문을 투고할 예정입니다.

임완희: 현재 기회 중인 리뷰논문 주제는 셀룰로오스 나노섬유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분석 및 이를 위한 평가 기법에 대한 종합적 고찰입니다. 최근 10여 년간 급속히 발전해온 CNF 연구에서 그 핵심이 되는 구조·표면 특성, 분산 안정성, 결정성, 기계적 물성, 열적 안정성 등 주요 특성 항목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해석 방법론을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각각의 특성에 대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분석 기법들(TEM, AFM, XRD, FTIR, TGA, Zeta potential 등)의 원리와 적용 사례를 비교·정리하여, 저를 비롯한 신진 연구자들이 CNF 연구에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역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뷰를 통해 CNF의 활용 가능성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재료 설계 및 공정 최적화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계 및 산업체 모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집필하겠습니다.

권수진: 2025년 펄프종이기술 57권 2호에 바이오 소재의 생분해성 매커니즘에 대한 리뷰 논문을 투고하였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기본적인 분해 메커니즘을 다루었지만, 향후에는 다양한 생분해성 평가법을 집성하고, 그 한계와 적용성에 대해 고찰한 종합적인 리뷰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산학연 협력에서 실제 생분해 평가를 계획하거나 설계하는 데 있어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시작하고 있는 종이 제품의 LCA 연구와 관련하여, 펄프 및 종이 산업의 LCA 현황과 개선 방향을 다룬 리뷰 논문도 차후 투고 주제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펄프종이기술: 학회에서 신진연구자를 위해 도와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기술교육의 강사 참여, 산업체 공장장, 연구소장 등과의 소규모 모임 등등)

오규덕: 작년에 처음 시작된 아진피앤피 연구사업과 같은 프로그램이 앞으로 신진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로 기대합니다. 지난 3년간 연구사업을 준비하며 느낀 점은, 신진연구자로서 제지를 주제로 연구과제를 수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진피엔피 연구사업과 같은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되어 신진연구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 프로그램에서 제지사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주제를 함께 제시된다면, 신진연구자들이 산업계의 요구를 이해하고 관련 연구주제에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이 제지업계와 학계 연구자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단비: 현재 대학은 첨단 소재 개발 연구에 강점이 있지만 산업과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의 방향성을 잡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대학에서 수행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들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업계에 계신 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자주 가져 서로의 의견과 연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임완희: 신진연구자로서 연구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히 연구 초기 단계에서는 연구실 인프라가 부족하고, 네트워크나 정보 접근성 면에서도 제한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학회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산학연 간 연계

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신진연구자에게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학회 차원에서 산업체 수요와 학문적 연구를 연결할 수 있는 연구자/기업 매칭 프로그램, 기술설명회, 공동연구 포럼 등을 운영한다면, 실용적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공동연구 기회를 확보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권수진: 신진연구자 입장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은 산업현장과의 실질적인 연결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제지 산업 관련 기업 관계자들과의 소규모 라운드테이블, 기술세미나, 연구기획 워크숍과 같은 자리가 더욱 활성화되고, 특히 학회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인터뷰나 특집 세션과 같은 기획들이 더욱 확대된다면, 산업의 니즈와 연구의 접점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회 차원에서 이러한 교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신다면 신진연구자들에게는 매우 큰 격려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펄프종이기술: 혹시 기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오규덕: 펄프종이공학회는 1967년에 설립되어, 내후년이면 창립 6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임용 이후 학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지금까지 학계와 산업계의 수많은 분들의 혼신과 노력 덕분에 학회가 발전해왔음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계와 학계가 긴밀히 협력하고, 학회를 통하여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이단비: 먼저, 이렇게 인터뷰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배 연구자분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로의 연구를 공유하고 현재의 고민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협업의 가능성이 더욱 넓어졌다고 느낍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선배 교수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임완희: 신진연구자로서 연구와 교육을 병행하며 학문적 기반을 다져가는 지금, 학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큰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펠프·종이 분야에서 학문적 기여와 산업적 파급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연구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학회 구성원 간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의 장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라며, 저 역시 다양한 학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뜻깊은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권수진: 펠프종이공학회는 제가 대학원 시절부터 꾸준히 참여해 온 학회로, 저의 학문적 뿌리이자 성장의 토대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연구와 교육을 병행하는 위치에서 학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필요한 인력과 기술개발에 힘쓰며 학회와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연구자와 산업들이 학회를 통해 연결이 되어 융합적이고 실용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펠프종이기술: 네, 좋은 말씀해주신 네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펠프종이기술도 신진연구자와 산업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답:** 펠프종이기술 편집위원장 이학래